31st KIPA Anniversary	보 도 자 료	www.kipa.re.kr

배포 즉시 보도 가능			
배포일시	2022. 12. 16.(금)	작성부서	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
배포부서	한국행정연구원 정책홍보실	작 성 자	박 준 소장 (02-2007-0694) 심혜진 연구원 (02-2007-0665)

"국공립병원-철도-전력, 정부가 운영해야"
일반국민과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

2022년 제4차 국정데이터조사센터 데이터 브리프 발간

□ 한국행정연구원(원장 최상한)은 연구원이 수행한 각종 조사통계자료를 알기 쉽게 시각화한 2022년 제4차 "데이터 브리프(DATA BRIEF)"를 발간했다.

○ 이번 호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에서 수행한 「행정에 관한 공무원과 국민 인식조사」*를 통해 정부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하여 일반국민과 공무원들의 인식 차이를 소개하고, 경제적 및 사생활 자유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이념지형을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관점에서 확인했다.

> * 2022년 「행정에 관한 공무원과 국민 인식조사」는 일반국민과 공무원이 바라보는 정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일반국민 1,500명과 현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 1,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행정 현황 및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인식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. 2022년 조사는 한국능률협회플러스에 의뢰하여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었으며,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일반국민 ±2.5%p, 공무원 ±3.1%p이다.

□ 일반국민과 공무원 모두에서 전력, 철도, 국공립병원 등 주요 공공서비스에 대해 '정부가 계속 운영해야 한다'는 의견이 '민영화해야 한다'는 의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

□ **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인식은 일반국민과 공무원이 동일한 경향을 보임**

○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출 규모는 일반국민 3.31점, 공무원 3.34점으로 확대를 선호한 반면, 시장규제 등 정부의 민간경제 개입은 일반국민 2.99점, 공무원 2.77점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음

* "정부의 공공서비스와 이에 필요한 지출이 확대되어야 한다"와 "경제문제는 민간 자율보다 정부 개입이 바람직하다"라는 질문에서 "매우 반대" 1점 ~ "매우 동의" 5점 척도로 조사. 3점이 "보통"으로 중간값

□ **각 분야별 정부지출에 대한 인식은 일반국민과 공무원 모두 전반적으로 정부지출 증가를 선호함.** 특히 환경보호, 보건, 공공질서 등의 분야에서 지출 확대 선호도가 높았음. **한편,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일반국민은 지출감소(2.84점)를, 공무원은 지출증가(3.25점)를 선호해 차이를 보임**

○ 일반국민은 환경보호(3.73점), 보건(3.69점), 사회복지(3.53점) 순으로 지출확대 선호도가 높음

○ 공무원은 환경보호(3.74점), 공공질서(3.66점), 보건(3.65점) 순으로 지출확대 선호도가 높음

* "각 분야에 대해 정부가 지출을 얼마나 더 늘려야 혹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"라는 질문에서 "훨씬 더 줄여야 한다" 1점 ~ "훨씬 더 늘려야 한다" 5점 척도로 조사. 3점이 "보통"으로 중간값

□ 한국사회의 이념지형을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사생활 자유에 대한 태도를 기준*으로 구분하여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응답 결과에 적용함

○ 자유주의: 경제적 자유와 사생활 자유를 모두 중시

○ 보수주의: 경제적 자유는 중시하지만, 정부의 사생활 관여는 수용

○ 권위주의: 정부의 경제적 관여와 사생활 관여를 모두 수용

○ 진보주의: 정부의 경제적 관여는 수용하지만, 사생활 자유는 중시

* 출처: Ipsos코리아, 한국인 정치성향 조사결과 분석 (2018.11.5.)

□ **일반국민과 공무원의 이념지형을 비교한 결과, 공무원은 일반국민에 비해 중립적 응답 성향이 더 강했음. 또한, 경제문제에 대해 일반국민은 쌍봉형 이념분포를 보인 반면, 공무원은 특이하게도 단봉형 이념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**

○ 일반국민은 진보주의형(25.9%), 자유주의형(17.8%), 권위주의형(17.0%), 중도형(5.9%), 보수주의형(5.4%) 순으로 비중이 높음

○ 공무원의 경우, 진보주의형(21.7%), 자유주의형(18.9%), 권위주의형(10.5%), 중도형(10.9%), 보수주의형(4.2%) 순으로 비중이 높음

<첨부> 한국행정연구원 "2022년 제4차 국정데이터조사센터 데이터 브리프"